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개관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옛 전남도청 본관 앞 은행나무 야외 탄흔 현장.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46년 만에 시민 품으로

옛 전남도청 정식 개관

1980년 5월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끝까지 항전했던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이 복원 공사를 마치고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식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옛 전남도청이 정식 개관했다.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자리한 옛 전남도청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 건립됐다. 당시 관공서 건축 설계와 시공을 일본인이

한국인 건축가 참여한 근대건축물...5·18 역사 현장 복원 2년5개월 공사 끝 정식 개관...‘탄흔·상황실’ 원형 되살려

주도하던 시절, 한국인 건축가 김순하씨가 설계와 시공 과정에 참여해 완성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물 정면에는 수직으로 배열된 3개의 창과 코린트 양식을 단순화한 장식 기둥이 적용돼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건축미를 갖췄다. 역사·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옛 전남도청은 75년 가까이 광주·전남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특히 1980년 5월에는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운영되며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 거점이었다. 계엄군은 같은 해 5월27일 새벽 도청을 강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시민군이 희생됐다.

이후 전남도청이 2005년 무안 남아신도

사로 이전하면서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을 조성하며 5·18 정신을 아시아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가 철거되고 건물 구조가 변경되면서 원형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군 휴게공간과 본관-회의실 연결 복도 등이 사라졌고, 도청 본관과 도청합숙 건물의 탄흔 위에는 페인트가 덧칠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5·18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

다. 오월 어머니들을 비롯한 복원지킴이들은 수년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원형 복원을 요구했고, 결국 정부도 복원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2018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복원 사업이 반영됐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복원은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5·18 항쟁의 현장을 되살리는 작업에 가까웠다. 복원추진단은 2020년 정밀 탄흔 조사를 통해 건물 안팎에서 탄두 15개를 발견했고, 이는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을 입증하

는 자료가 됐다. 이후 고층과 설계를 거쳐 2023년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약 2년5개월간의 공사 끝에 올해 1월 도청 본관·별관·회의실, 도청합숙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개 동 복원이 완료됐다.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 시민수습대책위원회 회의 타자 등도 당시 모습대로 재현됐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약 한 달간 9만5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이제 옛 전남도청은 5·18의 기억과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 교육·추모 공간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기념식 이모저모

‘안전 단체복’ 눈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정치권 인사와 5·18 유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안전 관리를 위한 학생들의 단체복 착용이 눈길을 끌었다.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대에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 수백명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루. 경찰과 국가보훈부는 행사장 입구에서 칼 등 위험물 검문검색을 진행하며 안전 조치를 강화해.

이날 학강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은 오월 정신 체험을 위해 기념식에 참석. 학생들은 반별로 파란색·형광색·분홍색 조끼를 맞춰 입고 질서정연하게 행사에 참여해. 광주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명이 적힌 흰색 티셔츠를 입고 지정 좌석에 앉아.

국민의힘 지도부에 ‘야유’

○...국민의힘 지도부는 시민들의 야유속 별도 통로를 통해 행사장에 입장.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측면 통로를 이용해 기념식장으로 이동.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내란집단”이라고 외치며 항의했고, 장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부 시민들은 “집은 언제 파냐”, “대통령이 왔는데 무슨 동혁이 왔어” 등의 비판을 쏟아내기도.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호남 일정으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 반발로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대통령 보고 싶어요”

○...초청장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행사장 밖에서 전광판과 휴대전화 생중계를 통해 기념식을 지켜봐.

광주 동구 동명동에 거주하는 김모(50)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민주광장을 찾아. 그는 기념식이 국립5·18민주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초청권이 없는 시민은 행사장 출입이 제한됐고, 김씨는 결국 울타리 밖

에서 기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장내 아니문서사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고 알려자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며 행사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켰.

이처럼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전일빌딩245 앞 전광판이나 휴대전화 생중계를 통해 기념식을 시청.

공영주차장 통제로 곳곳 혼선

○...기념식 기간 일부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동구 공영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이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5·18 전야제와 기념식 행사 차량 운영 때문. 사안에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등록 외 차량 출입금지’ 안내 문구와 함께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일부는 차량 번호 인식 오류로 오인해 전·후진을 반복하기도. 결국 차량을 돌려 인근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상황도 이어져.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